

만주어 내포문에 나타나는 seme의 문법적 지위

도정업* · 정한별**

국문초록

지금까지 만주어 연구자들은 seme를 인용문에만 나타나는 단어로 파악하고, 인용 조사나 발화/인지/지각동사의 보문을 표시하는 보문소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seme는 河內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와 Gorelova(2002)에 예시된 바와 같이 인용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동사구 내포문에서도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 논문에서 설명한 seme의 여러 가지 역할과 본 연구에서 발견한 seme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seme가 내포문 전반의 보문소(complementizer head)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결국, 본 연구는 seme가 나타나는 내포문이 정형성을 지닌다는 점과 내포문 내에 의문문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seme 내포문이 보문소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seme가 언제나 보문소구 내포문의 오른쪽에 인접하여 나타난다는 점을 근거로 seme가 보문소구 내포문의 핵인 보문소라고 주장한다.

[주제어] 만주어, 인용문, 내포문, 보문소, seme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seme의 문법적 지위: 내포문 보문소 |
| II. 인용문에 나타나는 seme의 양상 | V. 맺음말 |
| III. 인용문 외의 복합문에서 나타나는 seme의 양상 | |

I. 머리말

본 연구는 만주어 내포문에서 나타나는 seme가 가진 여러 가지 역할을 살펴보고, 그것이 어떠한 문법적인 지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seme는 인용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주어의 인용문은 크게 ‘피인용문-se-’, ‘피

* 제1저자,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생 / dju1st@naver.com

* 연결저자, 서울대학교 시간강사 / han1230@hotmail.com

인용문-seme-인용동사와 같은 문장구조를 가진다. 이 가운데 ‘[피인용문]-seme-인용동사’ 구조에서 seme는 거의 예외가 없이 나타나며 se-의 본래의 의미인 ‘말하다’라는 의미는 없고 단지 인용문이 내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만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seme에 대해서 최동권(2006)에서는 인용조사로 보았다.¹⁾ 그런데 河內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와 Gorelova (2002) 등과 같은 연구에서는 만주어에서 나타나는 seme가 단지 인용문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접속사나 화제 표지와 같은 다른 역할도 하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seme의 여러 가지 역할과 본 연구에서 추가로 파악한 seme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seme가 모든 동사구 내포문에서 보문소(complementizer head)로 기능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²⁾ 연구에 이용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문헌

분류	서명(약칭)	간행시기	소장처	卷/冊	비 고
당안류	滿文老檔(老)	1778	中國第一歷史檔案館	180책	滿文
문학류	三國志(三)	雍正 연간 (1723~1735)	프랑스 국립도서관	24/8	滿漢合璧
	金瓶梅(金)	1708	中國國家圖書館	40책	滿漢文

대상 문헌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한다. 『金瓶梅』는 대상 문헌 중 가장 이른 시기에 간행되었다. 그리고 한어로 된 소설이 원작이지만 대화체를 많이 수록하고 있어서 만주어의 구어적인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滿文老檔』과 『三國志』는 간행된 시기가 『金瓶梅』보다 늦지만 간행 연도보다 이른 시기의 만주어를 반영하고 있다. 『滿文老檔』은 1607년부터 1636년까지의 기록이 담긴 당안 37책을 중초하여 만들었으므로 문법적인 현상은 17세기 초반의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三國志』의 경우 옹정 연간에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岸田文隆(1990: 92)에 따르면 옹정 연간의 『三國志』는 순치(順治) 7년(1650)에 간행된 『三國志』의 만주문을 토대로 하여 만들었고, 그 중 비규범적인 표기를 수정하여 간행한 것이다. 즉, 이 연구에서 선정한 세 문헌은 모두 만주 문자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간행된 만주어 문헌 중에서 이른 시기에 간행된 문헌에 해당하는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인용문에 나타나는 seme에 대해서 살펴보고, 3장에서는 인용문이 아닌 복합문에서 나타나는 seme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seme에 대한 새로운 문법적 지위를 정의할 것이며, 5장은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할 것이다.

- 1) 익명의 심사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국어의 ‘하고’가 만주어의 ‘seme’와 유사한 문법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어의 ‘하고’가 만주어의 ‘seme’와의 비교연구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2) 송재목(1999: 167)에서는 seme를 발화/인지/지각동사의 보문을 이끄는 보문소로 본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seme가 발화/인지/지각동사의 보문만을 이끄는 보문소가 아니라 동사구 내포문 전반의 보문소(embedded complementizer head)라고 본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본문에서 보문소란 생성문법(generative grammar)에서의 Complementizer Head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II. 인용문에 나타나는 seme의 양상

만주어 문장에 내포된 인용문의 주어는 주격과 더불어 대격으로도 빈번히 나타나서 일찍부터 여러 만주어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³⁾ 만주어의 인용문은 크게 피인용문의 주어의 형태와 인용의 형식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피인용문의 주어의 형태에 따라서 보면 격 표시가 없는 주격 형태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 대격 표시가 연결된 대격 형태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로 나뉜다. 그리고 인용의 형식에 따라서 보면 ‘seme+서술어’의 형태로 인용되는 경우와 se-가 본동사로 사용되어 인용되는 경우로 나뉜다. 인용문을 구조화하고 예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⁴⁾

(1) 만주어 인용문의 구조

ㄱ. (NP1) [NP2-Ø VP] se-

[bi	we]	sehe, (金 3:14b)
1.SG.NOM	누구	말하다-PST.PTCP

‘내가 누구냐고 했다.’

ㄴ. (NP1) [NP2-ACC VP] se-

agu	[mimbe	uttu	bi-he]	se-mbi, (金 29:1a)
형님	1.SG.ACC	이렇게	있다-PST.PTCP	말하다-NPST

‘형님이 [내가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

ㄷ. (NP1) [NP2-Ø VP] seme VP

mini	deo	jirgalang	be	[bi
1.SG.GEN	아우	jirgalang	ACC	1.SG.NOM
gai-fi	te-ki]	seme	hendu-he	
데리다-ANT.CVB	주둔하다-OPT	SEME	말하다-PST.PTCP	

manggi, (老 111:33)
after
‘나의 아우 Jirgalang을 [내가 데리고 주둔하겠다라고 말한 후에]’

ㄹ. (NP1) [NP2-ACC VP] seme VP

te	ere	weile	be	yabu-ha	de	niyalma	[mimbe
----	-----	-------	----	---------	----	---------	--------

3) 인용문에 나타난 대격 주어 현상에 대한 연구로는 上原 久(1960)와 津曲敏郎(2002),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 최동권(2002), 최동권(2006) 등이 있다.

4) -ra와 -ha 형태는 분사나 동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서술어의 종결 어미로도 쓰일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만주어 연구에서 이 형태를 분사로 보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형태들을 분사(participle)로 보기로 하며, 주석(gloss)에서는 PTCP로 반영하기로 한다.

지금 이 일 ACC 하다-PST,PTCP DAT 사람 1.SG,ACC
 amba baili be onggo-ho] seme hendu-mbi, (三 8:114b-115a)
 큰 은혜 ACC 잇다-PST,PTCP SEME 말하다-NPST
 ‘지금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큰 은혜를 잊었다고 말할 것이다.’

(ㄱ)과 (ㄴ)은 se- 형태로 인용이 된 예문이고, (ㄷ)과 (ㄹ)은 ‘seme+서술어’ 형태로 인용이 된 예문이다.
 (ㄱ)과 (ㄷ)에서는 피인용문의 주어가 주격이고, (ㄴ)과 (ㄹ)에서는 대격이다.

서술어가 ‘se- + 동사’의 구성인 경우에는 seme가 예외없이 나타나는 듯하다. seme에 빈번히 후행하는 동사들은 ala-(보고하다), donji-(듣다), gūni-(생각하다), hendu-(말하다), gisure-(말하다) 등이다.

본고의 조사 대상 문헌에서는 sefi + ala-/ gūni-/ hendu-는 간혹 보이지만 ‘seci + 동사’와 sefi + donji-/ gisure-는 나타나지 않는다.

(2) sefi ala-/ gūni-/ hendu- 형태의 인용문

ㄱ. [bi sinde emu injeku gisu ala-ra]
 1.SG,NOM 2.SG,DAT 하나 농담 말 알리다-NPST,PTCP
 sefi ala-me, [emu asihata gise hehe
 말하다-ANT,CVB 알리다-SIM,CVB 하나 젊은이 기생
 de feliye-mbihe], …… (金 15:16a)
 DAT 자주 다나-PST
 “내가 너에게 한 농담을 알려주겠다” 하고 알리기를 “한 젊은이가 기생에게 자주 다녔었다...”

ㄴ. cen gung [tsootsoo be saci-ki] se-fi
 진궁 조조 ACC 베다-OPT 말하다-ANT,CVB
 gūni-me, [bi gurun boo-i jalinde
 생각하다-SIM,CVB 1.SG,NOM 나라 집-GEN 위해서
 daha-me ji-he], (三 1:128b)
 따르다-SIM,CVB 오다-PST,PTCP
 ‘진궁이 “조조를 베겠다” 하고 생각하기를 “나는 나라와 집을 위해서 따라서 왔었다.”’

ㄷ. tsy lung esukiye-me ling ni duka be ume
 자룽 성을 내다-SIM,CVB 영 GEN 문 ACC NEG,IMP
 yaksi-re] se-fi hendu-me, [si
 달다-NPST,PTCP 말하다-ANT,CVB 말하다-SIM,CVB 2.SG,NOM
 adarame sa-rkū], …… (三 15:31a)
 왜 알다-NPST,PTCP,NEG
 ‘자룽이 성을 내고 “영의 문을 닫지 말라” 하고서 말하기를 “너는 왜 모르는가...”’

르. meni	juwe	nofi	boo-de	gene-hekū
1.PL.GEN(EXCL)	둘	사람	집-DAT	가다-PST.PTCP.NEG
juwe	inenggi	o-ho	se-fi	hendu-me,
둘	날	되다-PST.PTCP	말하다-ANT.CVB	말하다-SIM.CVB
suweni	duin	nofi	ainu	teni
2.PL.GEN	넛	사람	왜	이제야
				오다-PST.PTCP
“우리 두 사람이 집에 가지 않은 것이 이틀이 되었다” 하고 말하기를 “너희 네 사람은 왜 이제야 왔는가”				

본 연구의 대상 문헌에서 sefi ala- 형태와 sefi gūni- 형태의 예문은 하나씩 나타나고, sefi hendu-의 예문은 40개가 나타난다. 그런데 위의 예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sefi+서술어’가 나타나는 예문은 ‘seme+서술어’ 형태의 인용문과는 다르게 se-가 본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sefi+서술어’ 형태의 예문들은 모두 ‘sefi alame, sefi gūnime, sefi hendume’와 같이 sefi 다음에 이어서 나타나는 동사가 모두 -me 형태를 취하는데, sefi에서 문장의 한 단위가 끝나고, 이어지는 동사에 부동사 어미 -me가 연결되어 새로운 인용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seme가 se-의 다른 형태들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 연구는 송재목(1999)과 최동권(2006)이 있다. 송재목(1999: 167-168)에서는 최동권(1988)에 나타난 seme gūni-(-고 생각하다)의 예문과 seme bodo-(-고 해아리다)의 예문을 근거로 하여 만주어에서 seme는 se-가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발화/인지/지각동사의 보문을 이끄는 보문소가 되었다고 보았다. 최동권(2006: 184-186)에서는 seme의 의미 규정이 어렵다는 점과 후행하는 서술어와의 관계를 나타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seme의 형태는 언제나 seme로만 쓰인다는 점을 들어 seme를 인용조사로 파악하였다. 이 연구들에서 seme를 인용을 위한 문법 표지로 인정한 것은 seme를 se-라는 동사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문법 단위로 인정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만주어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seme가 인용문만이 아닌 내포된 절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예들이 다수 등장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인용문이 아닌 복합문에서 나타나는 seme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Ⅲ. 인용문 외의 복합문에서 나타나는 seme의 양상

seme가 인용 표지로만 기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河內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와 Gorelova(2002) 등에서 지적된 바 있다. 河內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 281)는 색인에서 seme를 인용 조동사 부동사(quotative auxiliary converb), 대등/양보 접속사(co-ordinate/concessive conjunction)로 분류한 바 있다.⁵⁾ 용법에 대한 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seme가 단지 인용문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는 접속사에 seme를 포함시키면서도 해당

예문을 제시하지 않아서 어떠한 근거로 접속사로 분류하였는지를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Gorelova (2002: 599)는 후치사의 색인(Index of Suffixes) 부분에서 seme를 “IMPF.CONV from the verb se-; used as an analogue of the CNJs “that,” “in order,” “so that,” “although,” “though;” TOP”라고 하여 비완료 부동사(imperfect converb), 접속사의 동류어(an analogue of the CNJs), 화제(topic)로 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seme가 비완료 부동사로 쓰일 때 인용문과 관련이 있고, 접속사의 동류어나 화제로 쓰일 때는 인용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Gorelova (2002: 274-275)에서 접속사의 동류어나 화제로 쓰일 때의 예문으로 제시한 것이다.⁶⁾

(3) ‘(하)고’의 의미로 쓰인 seme의 예(Gorelova, 2002: 274)

ㄱ. [ama	eme	damu	nime-rahū]	seme	jobo-mbi
아버지	어머니	단지	병에 걸리다-PRV	SEME	걱정하다-NPST
'My only worry is that (my) father and mother might get ill' (ZAKH:210)					
'[아버지와 어머니가 단지 병에 걸릴까 하고 걱정이다.'					

ㄴ. ere	jalan	de	bi	[šimbe(ma,simbe)	
이	세상	DAT	1.SG.NOM	2.SG.ACC	
sabu-rakū]		seme		gūni-ha bihe	
보다-NPST,PTCP,NEG		SEME		생각하다-PST	
'I thought that I might never see you again in this world' (SK).					
'이 세상에서 내가 [너를 못 본다]고 생각했다.'					

(4) ‘~고 해도’의 의미로 쓰인 seme의 예(Gorelova, 2002: 275)

ㄱ. [gama-ha]		seme		tusa		akū
가지고 가다-PST,PTCP		SEME		쓸모		없다
'Even if (I) took (smth,) it would be of no use' (NSB:129)						
'[내가 그것을 가져갔다고 해도 쓸모가 없다.]'						

ㄴ. [i	gene-hel	seme,	inu	baita	de	tusa
3.SG,NOM	가다-PST,PTCP	SEME	역시	일	DAT	쓸모
ara-ra		ba		akū		
만들다-NPST,PTCP		바		없다		
'Even if he went (there) it would be of no use' (ZAKH:207).						
'[그가 갔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						

5) 접속사에 대한 색인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색인에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seme는 연결 접속사(copulative conjunction), 역접 접속사(adversative conjunction), 양보 접속사(concessive conjunction) 부분에서 seme가 나타난다.

6) 예문의 주석(gloss)은 본 연구의 방식에 따라서 수정하였다.

(5) 화제 표지로써의 seme의 예(Gorelova, 2002: 275)

uttu	o-ho-de,	teni	[niyalma]	seme	
이렇게	되다-PST,PTCP-DAT	이제야	사람	SEME	
jalan	de	banji-re	de	yertecun	akū
세상	DAT	살다-NPST,PTCP	DAT	부끄러움	없다

o-mbi

되다-NPST

‘If so, then a man, while he lives in the world, will not be ashamed’ (GAB:120)

(shame will become non-existent).

‘그렇다면, [(그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Gorelova는 (3)과 같은 문장에서 나타나는 seme를 보문소(Complementizer) ‘that’의 의미로 쓰인 예로 보았다. 이들 문장에서 seme는 내포문과 인접하여 나타나며 특별한 의미를 추가하지 않는 듯하며, 이러한 점에서 seme는 영어의 내포문 보문소 ‘that’과 유사하다고 본다. Gorelova (2002)에서는 seme가 ‘even if’의 의미로 사용된 예로 (4)와 같은 문장을 제시한다. (4)는 내포문을 포함하며 seme가 내포문의 오른쪽에 인접하여 위치한다는 점에서 (3)과 유사하다. 그러나 문장의 해석에 ‘even if’의 의미가 포함되는 듯하다는 점이 (3)과 다르다. 이러한 차이를 근거로 Gorelova는 (4)에서 seme가 ‘even if’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본다. (5)의 예문에서 Gorelova는 seme가 명사구에 바로 붙어 화제를 나타낸다고 분석하고 있다. 연구의 대상 문헌에서도 다음과 같은 예들에서는 seme가 Gorelova가 제시한 (3)에서 (5)와 유사한 행태를 보이는 용례가 나타난다.

(6) ‘(하)고’의 의미로 쓰인 seme의 예

ᄒ. bi	kemuni	[centsang	hecen	be	gaija-ra
1.SG.NOM	언제나	진창	성	ACC	취하다-NPST,PTCP
mangga]	seme	jobo-mbihe. (三 20:84b)			
어렵다	SEME	걱정하다-PST			
'나는 늘 [진창(陳倉)성을 취하는 것이 어렵다고 걱정했었다.'					

ᄒ. bi	...	[hehe	yargiyan]	seme	akda-ha. (金 26:20b)
1.SG.NOM	...	여자	진실하다	SEME	믿다-PST,PTCP
‘나는 ... [그 여자가 진실하다고 믿었다.]’					

(7) ‘~고 해도’의 의미로 쓰인 seme의 예

ᄒ. [ere	sargan	jui	be	muse	gaji-ha]
---------	--------	-----	----	------	----------

이 여자 자식 ACC 1.PL,NOM(INCL) 데려오다-PST,PTCP
 seme muse de bi-sirakū,
 SEME 1.PL(INCL) DAT 있다-NPST,PTCP,NEG
 [yaya de bu-he] seme ere sargan jui
 [누구든 DAT 주다-PST,PTCP] SEME 이 여자 자식
 aniya ambula banji-rakū, (老 4:14-15)
 해 많이 살다-NPST,PTCP,NEG
 ‘이 딸을 우리가 데려왔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있지 않을 것이고, [누구에게라도 주었다고 (하여도) 이 딸은 여러 해 살지 않을 것이다.’

ㄴ. [niowanggiyaha i jugūn be cooha ji-hel]
 niowanggiyaha GEN 길 ACC 병사 오다-PST,PTCP
 seme taka isinji-rakū, (老 8:10)
 SEME 금방 도달해오다-NPST,PTCP,NEG
 ‘[Niowanggiyaha 길을 병사가 왔다고 (하여도) 금방 도달해오지 않을 것이다.’

(8) 주어가 없는 형용사구·명사구가 서술어인 내포문

ㄱ. [du tang ni bithe] seme ara-ra be
 도당 GEN 글 SEME 쓰다-NPST,PTCP ACC
 naka, (老 58:20)
 그만두다-IMP
 ‘[도당의 글이라고 쓰는 것을 그만두라.’

ㄴ. [geren] seme komso be wa-ci, (老 65:47)
 여러 SEME 적다 ACC 죽이다-COND,CVB
 ‘[여럿이라고 적은 것을 죽이면,’

(6)은 ‘that’의 의미로 쓰인 seme의 예로 seme가 특별한 의미를 추가하지 않는 듯하다. (6)에서는 내포문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발화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용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또는 (6) 예서와 같이 seme가 보문소로 쓰인 예들은 보통 gūni-(생각하다), jobo-(걱정하다), akda-(민다)와 같이 감정동사나 인지동사가 상위문의 서술어일 때 나타나며 이때 내포문은 seme의 왼쪽에 인접하여 위치한다. (6)의 예문에서 상위문은 각각 jobo-(걱정하다), akda-(민다)가 서술어이고, 내포문은 각각 걱정을 하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seme는 내포절을 표시할 뿐 다른 기능을 하지 않는 듯하다.

(7)은 (4)와 같이 만주어문을 번역할 때 ‘~고 해도’의 의미가 포함되는 예문이다. 그런데, (4)와 같은 예문은 모두 내포문의 시제가 과거이면서 상위문의 서술어가 부정어라는 특징을 보인다. (4)의 예문에서 내포문

의 시제는 모두 -ha를 취하여 과거이며, 상위문은 akū로 부정하고 있다.⁷⁾ (7)의 예문들 역시 (4)와 유사하게 내포문의 시제가 과거이면서 상위문의 서술어가 부정어라는 특징을 보인다. (ㄱ)은 gaji-(데리고 오다)라는 내포문의 서술어가 과거형을 취하고 있으며, 상위문의 서술어는 bisirakū(있지 않는다)와 banjirakū(살지 않는다)와 같이 서술어 부정의 병렬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⁸⁾ (ㄴ)도 ji-(오다)라는 서술어가 과거형으로 나타나며, 상위문의 서술어는 isinjirakū(도달해오지 않는다)와 같이 부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4)와 (7)의 예문들은 한국어 해석에서는 ‘even if’를 의미하는 어휘가 형태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의미상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seme가 ‘even if’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지 않고 (3)과 다를 바 없이 ‘that’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더라도 의미상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5)의 예문과 유사한 예로는 (8)의 예문이 있다. (5)의 예문에서 Gorelova는 seme가 명사구에 바로 붙어 화제를 나타낸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사실 (5)는 내포문의 주어가 생략되어 형용사구나 명사구만 나타나는 내포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예문 (7)에서 또한 du tang ni bithe(도당의 글)이나 geren(여럿)의 주어는 각각 naka-(그만 두다)와 wa-(죽이다)와 같은 동사의 행위주이면서 생략되어 있을 뿐 seme가 화제의 표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다면, 이 또한 seme가 내포문에 오른쪽에 인접하여 나타나는 경우로 ‘that’의 의미로 쓰인 예들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Gorelova (2002)에서 seme가 인용문 외에도 세 가지의 다른 구문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세 구문 모두 인용문이 아닌 내포문을 포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seme가 반드시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듯하다. Gorelova (2002)가 제시한 seme의 기능들은 특정 구문에서만 나타나는 점 등을 보아 seme 고유의 기능이 아니라고 짐작할 수 있다.

Gorelova (2002)에서 제시한 경우 이외에도 seme는 부가어와 함께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역시 seme는 내포문에 인접하여 나타난다. 다음은 부가어에서 나타나는 seme의 예들이다. 예문은 내포문 주어가 주격이고, 서술어가 형용사나 명사인 경우, 내포문 주어가 주격이고 서술어가 동사인 경우, 내포문 주어가 대격이면서 서술어가 형용사나 명사인 경우, 내포문 주어가 대격이면서 서술어가 동사인 경우로 나누어서 제시한다.⁹⁾ 아래의 예문에서 나타나듯이, 부가어 내포문은 seme의 앞에서 나타나며, 내포문 주어의 격이나 내포문 서술어의 종류에 관계없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부가어에서의 seme의 출현

ㄱ. 내포문 주어가 주격이고, 서술어가 형용사·명사인 경우

[g'ao giya ši gebungge niyalma, ejen akū

7) 위의 예문에서는 akū라는 어휘를 사용한 부정의 예만 제시했지만, 분사형에 -akū가 연결되어 부정문을 형성하는 예들도 나타난다.

8) 만주어의 병렬 구성은 부동사 어미인 -fi, -me 등의 나열로 나타낼 수도 있으나 분사형을 나열하여 나타내는 경우도 많다.

9) 형용사와 명사를 같은 부류로 묶어서 설명하는 것은 만주어에서 형용사와 명사가 비슷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菅野裕臣 (2001: 16)에서는 ‘만주어의 형용사는 명사와 함께 Nomen을 이루는데, 한국어에서는 동사와 함께 용언을 이룬다’고 하여 만주어와 한국어의 형용사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g'ao giya ši	이름을 가지다	사람	주인	없다
niyalma-i	ulin	benji-he	sain]	seme,
사람-GEN	재물	보내다-PST,PTCP	좋다	SEME
juwan	yan	menggun	šangna-ha, (老 73:17)	
열	냥	은	상으로 주다-PST,PTCP	
'[G'ao Giya Ši라는 사람이 주인 없는 사람의 재물을 보내온 것이 좋다고 10냥의 은을 상으로 주었다.'				

ㄴ. 내포문 주어가 주격이고 서술어가 동사인 경우

su ši deng	baica-hakū,	[be gi jai	i	niyalma
su ši deng	조사하다-PST,PTCP,NEG	be gi jai	GEN	사람
gene-he]	seme,	su ši deng	ni	ahūn
가다-PST,PTCP	SEME	su ši deng	GEN	형
be	wa-ha, (老48:4)			아우
ACC	죽이다-PST,PTCP			
'Su Ši Deng이 조사하지 않고 [Be Gi Jai의 사람이 갔다고 Su Ši Deng의 형제를 죽였다.'				

ㄷ. 내포문 주어가 대격이면서 서술어가 형용사·명사인 경우

be	[cahar	i	han	be	ehel	seme,
1,PL,NOM(EXCL)	cahar	GEN	han	ACC	나쁘다	SEME
sure han	be	bai-me	ji-he, (老 88:3)			
sure han	ACC	찾다-SIM,CVB	오다-PST,PTCP			
'우리는 [Cahar Han을 나쁘다고 Sure Han을 찾아서 왔다.'						

ㄹ. 내포문 주어가 대격이면서 서술어가 동사인 경우

[amba beile	i	cooha,	duici beile	i	cooha	be
amba beile	GEN	군대	duici beile	GEN	군대	ACC
ili]	seme		erdeni baksi	be	takūra-ha	
서다-IMP	SEME		erdeni baksi	ACC	보내다-PST,PTCP	
manggi, (老 6:39)						
후						
'(Han이) [Amba Beile의 군대, Duici Beile의 군대가 멈추라고 Erdeni Baksi를 보내자.'						

종합하여 보면 seme가 나타나는 환경을 크게 인용 내포문, ‘~고 해도’의 의미를 포함하는 인용이 아닌 내포문, ‘~고 해도’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 인용이 아닌 내포문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각 환경마다 seme의 기능을 각각 설정하는 다원적인 접근법을 택하여 seme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환경에서 나타나는 seme가 모두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는 일원적 접근법을 택하고자 한다.

일원적인 접근법을 택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는 seme가 나타나는 환경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있다. 일원적 접근법은 각 환경에 공통점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seme가 나타나는 환경은 언제나 내포문을 포함하는 복합문이며, seme의 위치 또한 공통되게 내포문의 오른쪽에 인접하여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seme는 최소한 각 환경에서 복합문의 내포문을 나타내어 주는 표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seme의 기능을 오로지 내포문의 표지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각 환경에서 seme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능이 다른 요소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인용문의 경우에 seme는 내포문의 표지의 기능 이외에 특별히 다른 기능을 하지 않는다. 즉, 인용문과 함께 나타나는 seme는 일반 내포문과 함께 나타나는 seme와 같이 분석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문제가 될 만한 것은 ‘~고 해도’의 의미를 포함하는 내포문에서 나타나는 seme이다. (4)와 (7)을 보면 영문 번역에서 나타나는 ‘~고 해도’의 의미를 표현하는 어휘가 만주어 원문에 따로 나타나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seme가 ‘~고 해도’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한국어 번역에서는 ‘~고 해도’와 대응되는 어휘 없이도 그 의미 파악이 가능하며, 이는 문장에 해석에서 나타나는 ‘~고 해도’의 의미가 seme에서 비롯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고 해도’의 의미가 내포문의 시제가 과거이면서 상위문의 서술어가 부정어인 경우에만 나타나는 점 또한 ‘~고 해도’의 의미가 seme에서 비롯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만약 ‘~고 해도’의 의미가 seme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면, ‘~고 해도’의 의미를 포함하는 내포문에서의 seme 역시 일반 내포문에서의 seme와 다를 바가 없으며 이를 보아 seme는 언제나 복합문의 내포문을 나타내어 주는 표지로 기능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한 듯하다.¹⁰⁾ 다음 장에서는 seme와 함께 나타나는 내포문의 자질들을 검토하여 봄으로써 seme의 문법적 지위를 정의하기로 한다.

IV. seme의 문법적 지위: 내포문 보문소

지금까지 우리는 seme가 내포문과 함께 나타나며 내포문을 표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생성문법에서는 내포문을 크기에 따라 소절(*small clause*), 시제구(*tense phrase*), 보문구(*complimentizer phrase*)로 구분할 수 있다. 본장에서는 각 내포문이 지니는 성질을 이용하여 seme 내포문의 크기를 확인하

10) seme와 같이 ‘말하다’ 류의 동사와 관련이 있는 형태가 인용문뿐만 아니라 복합문에서 내포문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른 언어에서도 발견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Lord (1976)에서는 에웨어(Ewe)나 요루바어(Yoruba) 등에서 ‘말하다’ 류의 동사가 인용문 외의 부사절에서 보문소로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만주어와 친연 관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몽골어에서도 발견되는데, 송재목(1999)에서는 몽골어의 *gej*가 인용문뿐만 아니라 의도/목적 부사절을 이끄는 보문소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고 이를 통하여 seme의 성질을 확정하고자 한다.

1. seme 내포문의 정형성(finiteness)과 시제구(Tense Phrase)의 존재

본 절에서는 seme와 함께 나타나는 내포문이 시제구를 포함하는지, 시제구를 포함한다면 정형절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만약 seme와 함께 나타나는 내포문이 정형 시제구(finite tense phrase)를 포함한다면, 내포문 내에 시제가 나타나고 주격이 인허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¹¹⁾

위에서 우리는 seme와 함께 나타나는 내포문의 주어가 대격 표지인 be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고, 이러한 격 현상은 비정형절 내포문의 주어에서 흔히 나타나기 때문에 seme와 함께 나타나는 내포문이 비정형절로 여겨지거나 또는 시제구가 없는 소절(small clause)로 여겨질 수 있다. 실제로 seme 내포문은 형용사·명사인 서술어와 함께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내포문에서는 시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만주어에서는 일반적으로 형용사·명사인 서술어에는 시제가 붙지 않으며, 동사 서술어가 seme에 인접한 내포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시제와 함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Chung & Do 2017).

(10) 서술어가 형용사·명사인 경우

ᄒ.	tereci	tulergi	urse	gemu	[tere	be	yabun	ehe]	seme
	그 후	밖	사람	모두	그/그녀	ACC	행실	나쁘다	SEME
	gisure-cibe, (金 56:19b)								
	말하다-CONC,CVB								
	‘그 후 외부 사람이 모두 [그/그녀가 행실이 나쁘다]고 말했다.’								

ᄒ.	amaga	jalan	i	niyalma	[tsootsoo	be	sain
	후의	세대	GEN	사람	조조	ACC	좋다
	niyalma]	seme	makta-habi,				
	사람	SEME	칭찬하다-PST				
	‘후세 사람들이 [조조를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三 16:118a)

(11) 서술어가 동사인 경우

ᄒ.	pan gin liyan	[si men king	be	ji-hel]	seme
	반금련	서문경	ACC	오다-PST,PTCP	SEME

11) 본 논문에서는 주격(nominative case)이 시제(tense head)에 의하여 인허(license)된다는 생성문법의 일반적인 가정을 따른다. 이러한 가정을 따를 경우, 내포문의 주어가 주격으로 실현되는지의 여부를 통하여 내포문 내에 시제구가 존재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donji-fi, (金 8:11a)

듣다-ANT.CVB

‘반금련이 [서문경이 왔다고 듣고서,’

ㄴ. meni	wang,	[beile	simbe	ji-mbil	seme
1.PL.GEN(EXCL)	왕	beile	2.SG.ACC	오다-NPST	SEME

donji-fi, (老 85:20)

듣다-ANT.CVB

‘우리 왕이 [beile 네가 온다고 듣고서,’

(10)의 예문에서 내포문의 서술어가 형용사이거나 명사인 경우에는 내포문에 시제가 형태적으로 실현되지 않지만 (11)의 예문을 보면 동사 서술어 ji-(오다)가 과거와 비과거 시제 형태와 모두 함께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포문에 나타나는 시제 형태가 본문의 시제 형태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 또한 내포문에서 시제가 실현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12)의 예문들은 내포문에 나타나는 시제 형태가 본문의 시제 형태와 일치하지 않는 예들로 (12ㄱ)에서는 내포문은 비과거 시제이지만 본문은 과거시제인 경우이고, (12ㄴ)은 내포문은 과거시제이지만 본문은 비과거시제인 경우이다.

(12) 내포문의 시제와 본문의 시제가 불일치하는 경우

ㄱ. [tsaiyung	nime-mbil	seme	ji-hekū, (三 1:102a)
채웅	아프다-NPST	SEME	오다-PST.PTCP.NEG

‘채웅이 아프다고 오지 않았다.’

ㄴ. [bi	inu	mini	irgen	ekiye-hel
1.SG.NOM	역시	1.SG.GEN	백성	감소하다-PST.PTCP

seme koro-mbi, (老 21:38)

SEME 분개하다-NPST

‘나 역시 나의 백성이 감소했다고 분개한다.’

seme와 함께 나타나는 내포문의 주어가 주격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는 것 또한 seme와 함께 나타나는 내포문이 비정형절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만약 seme와 함께 나타나는 내포문이 비정형절이거나 시제구를 포함하지 않는 소절이라면, 내포문 내에서 주격을 인허할 수 없고 따라서 내포문의 주어는 언제나 대격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만주어에서의 주격은 영형태로 실현되기 때문에, 내포문의 주어가 영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여

반드시 주격임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만주어에서는 목적격이 형태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seme 내포문의 주어에 목적격 표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주격으로 볼 수 있는지 의심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칭대명사의 경우, 굴절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내포문의 주어가 주격형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앞의 (11)에서 우리는 seme형 인용문/내포문의 1인칭 주어가 주격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13) 역시 내포문의 1인칭 주어가 주격형으로 나타나는 한 예이다.

(13) 주격 대명사 예

[bi	inu	uttu	gūni-ha bihe]	seme,	juwe	niyalma
1.SG.NOM	역시	이렇게	생각하다-PST	SEME	둘	사람
cooha	be	gai-fi,		tsootsoo	de	daha-me
병사	ACC	이끌다-ANT.CVB		조조	DAT	항복하다-SIM.CVB
ji-he, (三 6:152b)						
오다-PST.PTCP						

‘[나도 이렇게 생각했었다고 두 사람이 병사를 이끌고 조조에게 항복하러 왔다.’

결론적으로 seme가 함께 나타나는 내포문 내에서 시제가 실현되고 주어가 주격을 받을 수 있는 점으로 보아 seme 내포문은 최소한 시제구를 포함함을 알 수 있다.

2. 보문소구(CP)의 포함여부

seme와 함께 나타나는 내포문 내에서 시제가 드러나는 점으로 보아 최소한 시제구(TP)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절에서는 seme와 함께 나타나는 내포문이 보문소구(CP)를 포함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정형절 내포문의 경우에는 내포문이 보문소구까지 확장된다고 가정한다.¹²⁾ (14)에서 that은 내포문의 보문소이며 that을 포함하는 내포문은 보문소구로 여겨진다. 생성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정형절 시제구는 보문소구로 투사된다고 여겨진다. 이에 따라 (14)에서 that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내포문이 보문소구까지 투사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seme 내포문은 정형절 시제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보문소구까지 투사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14) 영어의 보문소구 내포문

I know (that) you ate chicken yesterday

12) Miyagawa(2017)는 C의 존재와 finiteness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C 핵으로부터 T 핵으로 일치 자질(agreement feature) 등이 계승(inherit)된다고 설명한다. 즉, 일치 자질을 지니는 finite T는 반드시 보문소구(CP)까지 투사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문문을 이용하여 seme 절이 보문소구까지 확장하는지를 점검한다. Huang(1982) 이후로 생성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의문사의 이동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도 의문사가 [Spec, CP]로 이동한다고 가정한다. 즉,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보문소구를 포함한다고 본다. (15ㄱ)의 예문을 보면 내포문 내의 의문사가 내포문 내에서 해석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seme 내포문 내에 의문 자질을 지닌 보문소(complementizer head)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15)의 예문에서 seme와 함께 나타나는 내포문이 의문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seme와 함께 나타나는 내포문은 보문소구를 포함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5) 의문형 내포문

ㄱ. mimbe	[we	gelhun	akū	wa-mbi]	seme
1.SG.ACC	누가	겁	없다	죽이다-NPST	SEME
den	jilgan	i	hūla-me (三 21:135b)		
높다	목소리	INS	소리치다-SIM.CVB		
‘나를 누가 겁없이 죽이겠는가라고 높은 소리로 소리치고,’					

ㄴ. si men king,		[uthai	we	fifan	fithe-mbi]
서문경		곧	누가	비파	연주하다-NPST
seme	fonji-re-de (金 38:20b)				
SEME	묻다-NPST.PTCP-DAT				
‘서문경이 ... [곧 누가 비파를 연주했는가라고 물을 때,’					

ㄷ. ioi siyoo	[uthai	eniye		ji-he-ol]	seme
옥소	곧	어머니		오다-PST.PTCP-Q	SEME
fonji-re-de, (金 46:15b)					
묻다-NPST.PTCP-DAT					
‘옥소가 [곧 어머니가 왔는가라고 물을 때,’					

3. 보문소(complementizer head)로서의 seme

지금까지 우리는 seme와 함께 나타나는 내포문이 보문소구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seme가 보문소구 내포문의 오른쪽에 인접하여 나타나는 것 또한 확인하였다. 만주어에서는 일반적으로 핵이 오른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seme를 동사구 내포문의 보문소로 분석하면 seme의 분포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인용문에서 나타나는 seme와 인용문이 아닌 복합문에 나타나는 seme 모두 내포문 보문소구의 오른쪽에 인접하여 나타나며 이것은 seme가 보문소구 내포문의 핵인 보문소이기 때문이다. seme가 보문소라면 왜 본절에서는 나타

나지 못하고 내포문에서만 나타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본절의 보문소는 영형태로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생성문법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영어 본절에서의 보문소에 대한 가정과 다를 바 없다. 영어에서 또한 내포문의 보문소는 that으로 실현되는 반면 본절에서는 보문소가 영형태로 나타난다고 가정하고 있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인용문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진 seme가 보이는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고 seme의 문법적인 지위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로 기존 몇몇 연구에서 seme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으로 세분하여 설명하였던 것에서 벗어나 seme를 내포문 보문소구의 보문소라는 하나의 문법 용어로 정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seme가 나타나는 내포문이 정형성을 지닌다는 점과 내포문 내에 의문문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seme 내포문이 보문소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seme가 언제나 보문소구 내포문의 오른쪽에 인접하여 나타난다는 점을 근거로 seme가 보문소구 내포문의 핵인 보문소라고 주장한다.

〈참고문헌〉

- 권재일, 「한국어 인용 구문의 변화」, 『언어의 역사(성백인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서울: 태학사, 1999.
- 송재목, 「몽골어 동사 ‘ge-(말하다)’의 문법화에 대하여」, 『언어학』 24, 1999.
- 최동권, 「國語와 滿洲語 名詞句 內包文 比較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최동권, 「만주어 내포문 주어의 표현 양상」, 『동양학』 32, 2002.
- 최동권, 「국어·몽골어·만주어 인용문 비교연구」, 『알타이학보』 16, 2006.
- 菅野裕臣, 「사역원 청학서의 원문과 대역의 대응 관계에 대하여」, 『알타이학보』 11, 2001.
- 上原 久, 『滿文 滿洲實錄の研究』, 東京: 不昧堂, 1960.
- 岸田文隆, 「三譯總解 底本考」, 『알타이학보』 2, 1990.
- 津曲敏郎, 『滿洲語入門20講』, 東京: 大學書林, 2002.
- 河內良弘·清瀨義三郎則府, 『滿洲語文語入門』, 京都: 京都大學校學術出版會, 2002.
- Chung, Han-byul & Jeong-Up Do, “Dependent case model approach to Manchu nominal particle be; A corpus based study of case marking in Manchu,” Presented at *13th Workshop on Altaic Formal Linguistics (WAFL 13)*, ICU, Japan, 2017.

- Gorelova, Liliya M., *Manchu Grammar*, Leiden: Brill, 2002.
- Huang, C. T. James, "Move wh in a language without wh-movement," *The linguistic review* 1, 1982.
- Lord, Carol, "Evidence for syntactic reanalysis: from verb to complementizer in Kwa," Steever, Walker & Mufwene (eds.), *Papers from the Parasession on Diachronic Syntax*, Chicago Linguistic Society, 1976.
- Miyagawa, Shigeru, *Agreement Beyond Phi*, *Linguistic Inquiry Monograph*, MIT Press, 2017.

약어 목록¹³⁾

- 1 first person
- 2 second person
- 3 third person
- ACC accusative
- ANT anterior
- CAUS causative
- CONC concessive
- COND conditional
- CVB converb
- DAT dative
- DES desiderative
- EMP emphasis
- EXCL exclusive
- GEN genitive
- IMP imperative
- INCL inclusive
- IND indicative
- INS instrumental
- N- non- (e.g. NSG nonsingular, NPST nonpast)
- NEG negation, negative
- NOM nominative

13) 본고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기본적으로 Max Planck Institute에서 제시한 Leipzig Glossing Rules (<http://www.eva.mpg.de/lingua/resources/glossing-rules.php>)를 따른다. 이 목록에 없는 용어는 河內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 Li(2000), Gorelova(2002) 등을 참고하였다.

OPT optative

APPR apprehensive

PTL particle

PASS passive

PL plural

PST past

PTCP participle

PTL particle

Q question particle/marker

SG singular

SIM simultaneous

* 이 논문은 2017년 8월 17일에 투고되어,
2017년 9월 13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6년 9월 2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9월 29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The Status of Manchu seme**

Do, Jeongup* · Chung, Hanbyul**

Manchu seme has been previously analyzed as a quotative particle, due to the fact that it often appear with quotative clauses. However, seme may appear with non-quotative clauses as well, as pointed out by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 and Gorelova (2002). In this paper, we present an argument for the claim that seme is a complementizer head of an embedded clause. The argument is based on the observations that all instances of seme involve embedded clauses, appearing to the immediate right of the embedded clauses, and that the embedded clauses that appear with seme are always finite CPs, as they are tensed, assign nominative case, and may be interrogative.

[Key Words] Manchu, quotative clause, embedded clause, complementizer, seme

* Ph.D Candidate, Seoul National University

** Doc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